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상호 교차성 연구: 요나스 하센 케미리(Jonas Hassen Khemiri)의 『몬테코어』를 중심으로*

홍재웅**

본 논문은 기존의 스웨덴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테마와 새로운 서사기법으로 스웨덴 문학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는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대해서 고찰한다. 스웨덴 문학계는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대해 주류문학의 잣대로 이주 작가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작품분석에 있어서도 쉽게 오류를 범하곤 한다. 이러한 이유는 주류문학과 주류 지배집단의 관점에 빠져 이주자 문학을 단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주자 문학이 스웨덴 사회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제도권의 주류 문학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진정한 타자성의 이해와 인식이라고 보기 힘들다.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본 논문은 최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스웨덴의 대표적인 신예 작가 요나스 하센 케미리의 두 번째 장편소설인 『몬테코어』를 중심으로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을 살펴본다. 『몬테코어』는 케미리의 가족사에 대한 사적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829)

** 한국의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스웨덴 이주자들의 정착 과정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케미리의 소설 『몬테코어』는 이민자로서의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거친 감수성을 놀라운 서술 형식으로 그려 내고 있다. 특히 작품 속 케미리와 아버지의 갈등은 스웨덴 주류 사회와 이민자 사회 간의 긴장 및 충돌과 이중주를 이루며 케미리만의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주자 문학이 가지는 유용성만을 고려하는 주류 문학의 시각에서 벗어나 주류문화와 이주자 문화, 두 문화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경계를 살펴봄으로써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담겨있는 진정한 차이를 보여주고자 한다.

주제어: 스웨덴 이주자 문학, 요나스 하센 케미리, 몬테코어, 타자성, 상호 교차성

1. 들어가는 말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은 기존의 스웨덴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테마를 통해 스웨덴 문학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은 사회, 인종, 성 등 다양한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은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함으로써 스웨덴인과 이주자 사이에 놓인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주자 문학의 위상은 낯선 문화를 전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 간의 소통과 섞임에 있다. 문화다원주의 시대에 문화적 상호소통의 흔적을 더듬어 보는 것은 현재 스웨덴 문학 지형도에서 간과할 수 없고 시대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연구가 아닐 수 없다.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역할이 두드러진 이유는 다문화주의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주자 문학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글쓰기는 이주자들만이 할 수 있다. 스

웨덴의 이주자 문학의 경험세계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미학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는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인종, 성, 그리고 문화와 같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동시대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 이주자 문학은 주류사회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동시대 이주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주자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북유럽의 이주민이 겪게 되는 경험세계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혼혈가정과 마찬가지로 태생적으로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 속에 1세대와는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다른 정체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주 작가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목소리가 스웨덴에서는 이제까지 어떠한 특징을 지녔으며,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 언어와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히 동질적인 북유럽 국가들도 급속도로 탈지역화와 세계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주자 정책과 관련해서만은 서로 다른 형태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미 1970년-1980년대부터 오랫동안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해온 스웨덴은 1990년대 새로운 통합정책으로 정책전환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이주자 개개인을 시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이주자 개인에게 시민적·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이주자 문학을 발전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2. 스웨덴의 주류문학과 이주자문학의 위상

이주자 문학이 기존의 스웨덴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테마와 새로운 서사기법으로 스웨덴 문학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문학의 잣대로 이주 작가들을 과소평가하거나¹⁾ 작품분석에 있어서도 오류를

1) Annina Rabe, "Vasst på bruten svenska", in Svenska Dagbladet, 4 Aug., 2003.

범하는²⁾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주류문학과 주류 지배집단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을 고찰하거나 수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자 문학의 단층적인 면을 고찰하게 됨으로써 작품 자체의 분석에 머물거나 주류 지배집단의 시각과 쉽게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스웨덴 문화와는 다른 사회에서 온 이방인 혹은 타자로서, 주류 문학 혹은 주류 지배집단과 그들과는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주자 문학이 스웨덴 사회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제도권의 주류 문학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은 진정한 타자성의 이해와 인식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진정한 차이, 즉 타자성에 대한 고찰은 뒤로 한 채, 이주자 문학이 가지는 유용성만을 고려하는 주류 문학의 시각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문학연구자와 문예 비평가 및 미디어는 여전히 주류 문학의 시각을 통해서 이주자 문학을 편파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결국 두 문화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경계의 허물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1970년경에 스웨덴 이주자 문학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자 문학 작품에서 보이는 새로운 형식과 언어, 다양한 테마와 서술기법 등의 관심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위상과 역할을 다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언급했다시피 이제까지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인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관해 전반적으로 잘 소개된 연구는 사투 그뢴달(Satu Gröndahl)이 편집자로 참여한 책에 포함되어 있는 『문학의 경계: 북유럽 관점에서 본 이주자문학과 소수자문학(Litteraturens gränsländ: Invandrar och minoritetslitteratur i nordiskt perspektiv)』³⁾을 들 수 있다. 이 책에는 북유럽 이주자 문학과 관련된 논문이 모두

2) Maija Niittymäki, "Långt från det lagom svenska", in Nerikes Allehanda 27 Aug. 2003.

3) Satu Gröndahl, Litteraturens gränsländ: invandrar-och minoritetslitteratur i nordiskt perspektiv, Uppsala: Centrum för multietnisk forskning, 2002.

17편의 수록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 출간되기 시작한 소수자들과 이주자들의 문학작품들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 책 외에 북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에 한정된 연구자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북유럽 각국의 이주자 문학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했던 결과들이 눈에 띈다.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관한 연구서로 라쉬 벤델리우스(Lars Wendelius)의 『이중 정체성: 1970-1990년 사이의 스웨덴 이민자와 소수자 문학(Den dubbla identiteten. Immigrant- och minoritetslitteratur på svenska 1970-1990)』⁴⁾ 이 2002년에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1970년에서 1990년까지의 스웨덴 이주자 문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990년 이후에 널리 알려진 스웨덴 이주 작가들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다소 한계가 있지만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에 관한 고찰을 처음 시도했다는 것과 이중 정체성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흥미로운 연구서이다. 벤델리우스의 뒤를 이어 망누스 nil손(Magnus Nilsson)이 최근 이주자 문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2008년 스웨덴 문학연구 잡지인 삼라렌(Samlaren)에 기고한 “문학, 민족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관한 공연(Litteratur, etnicitet och föreställningen om det mångkulturella samhället)”을 들 수 있다.⁵⁾ 한편 nil손은 이외에도 북유럽 문학연구 잡지인 *Tijdschrift voor Skandinavistiek*의 31호에 스웨덴의 이민문학과 민족성에 관한 글을 통해 스웨덴 이민문학의 소개와 동시에 이주자 문학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⁶⁾ 독일인으로서 처음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볼프강 베쉬니트(Wolfgang Behschnitt)도 들 수 있다. 2007년 코펜하겐 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스웨덴의 현대 이주자 문학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다.⁷⁾ 반면에 덴마크의 경우, 페테르

4) Satu Gröndahl & Lars Wendelius, *Den dubbla identiteten: Immigrant- och minoritetslitteratur på svenska 1970-2000*, Uppsala, 2002.

5) Magnus Nilsson, *Samlaren: Tidskrift för svensk litteraturvetenskaplig forskning Årgang 129 2008*, Stockholm, 2009.

6) Magnus Nilsson, “Swedish ‘Immigrant Literature’ and the Construction of Ethnicity”, in *Tijdschrift voor Skandinavistiek* Vol. 31, Nr. 1 2010.

7) Wolfgang Behschnitt, “The voice of the ‘real migrant’. Contemporary ‘migrant literature’ in Sweden”, in Conference, Migration and Literature in Contemporary Europe, Köpenhavns universitet 8 nov. 2007.

레오나르드(Peter Leonard)의 연구가 유일하지만, 여전히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잡지 멀티에트니카(*Multiethnica*)의 31호(2008)에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의 간략한 소개와 함께 덴마크의 이주자 문학에 관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 짧은 소개의 글 정도에 그치고 있다.⁸⁾ 더군다나 한국에서의 스웨덴 이주자 문학 연구는 완전히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북유럽 문학에 관한 총체적인 소개는 북유럽 문학의 테마와 공간에 대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⁹⁾ 이주한 한인들 혹은 해외입양인 문학에 대해 최근 관심이 많아지면서, 미국에 입양된 신선영과 덴마크에 입양된 마야 리 랑그바드에 대한 연구 정도가 있는데 북유럽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¹⁰⁾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다문화주의와 더불어 시작된 스웨덴 이주자 문학이 초기단계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북유럽 내에서조차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북유럽의 연구자들도 여전히 소수의 연구자로 한정되어 있기에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기존 북유럽 이주자 문학 연구의 대부분은 작품 연구에서 머물고 있다. 사실 이주자 문학의 작품분석은 자칫 주류문학의 관점과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작가와 작품 및 사회적 환경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소개된 한인 이주자 문학이 최근 국문학계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인종, 성, 계급 등 다양한 범주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북유럽 이주자 문학을 고찰하기 위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8) Peter Leonard, “Det Etniske Gennembrud - Multicultural Literature in Denmark”, *Multiethnica* nr. 31, 2008.

9) 홍재웅, “북유럽 희곡에 내포된 공간적 특성에 대한 고찰”,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0호,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09.

10) 유진월 & 이화형, “침묵하는 타자에서 저항하는 주체로의 귀환: 해외 여성 입양인 문학의 지평”, 『우리문학연구』 29집, 우리문학회, 2010.

3. 이주자 문학과 상호 교차성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주자 문학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이민 문학(invandrarlitteratur)과 ‘이민 작가’(invandrarförfattare)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문학 연구자, 문예 비평가 및 미디어는 여전히 이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데, 무엇보다도 작품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이주자 문학과 관련된 개념은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어서, 이민 문학, 소수자 문학, 이주노동자문학, 외국인문학, 망명문학 등 이주자 문학과 관련된 용어들이 무척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각각의 용어들은 지배와 복종관계, 이주노동자의 한정성, 자국민과 외국인과의 차별성, 망명문학의 한정성 등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의 문학을 지칭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북유럽에서 ‘이민자’라는 말은 정치적, 인종적, 사회·문화적 소수집단으로 주변부를 내포하며 주류 집단의 배타성이 강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이민 문학’ 또는 ‘이민 작가’는 문학의 주변부를 가리키며, 그들의 예술적인 의욕을 모욕하거나 낮게 평가한다는 느낌을 준다. 결국 이들 용어의 태생은 주류 문학에서 바라보는 편파적인 시각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자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주자 문학은 근본적으로 정체성을 탐구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까지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 계급(차별)주의 등 주류 지배문화의 시각에 의한 억압의 요소들을 ‘상호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는 인식-분석틀로 바라보고자 한다. 상호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인식-분석틀은 1990년대 말 블랙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 이론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 개념으로서, 이주자 문학의 평면적 연구를 넘어선 입체적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가는 역동적인 다문화주의 사회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이론이라고 생각된다. 개념으로서 상호 교차성은 사회적 억압이 젠더와 인종뿐 아니라 계급, 섹슈얼리티, 시민으로서의 지위, 다양한 다른 결정변수들, 대중매체 및 지식 생산체제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적 폭력 등이 긴밀하게 맞물려서 작동

하는 방식에 착목한다.¹¹⁾ 다양한 범주가 복잡하게 얽혀 작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덧붙이기기가 아니다. 모든 여성은 젠더와 성차별을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하는데, 흑인여성은 인종차별을 하나 더 경험하고, 레즈비언 흑인여성은 추가로 호모포비아도 경험한다는 식이다. 예를 들어 ‘과학적 모성’을 주장하는 미국사회에서 백인여성은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과학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도 있(었)겠지만, 가사 노동과 생계부양을 모두 해야 한 흑인여성에게 ‘과학적 모성’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이런 맥락에서 1960년대 중산층 백인여성이 집에서 나와 일자리를 갖는 것이 ‘해방’이었다면 흑인여성은 일자리를 포기하고 집에서 양육하는 것이 저항행위였다. 다시 말해서 모든 ‘여성’은 동일한 젠더를 경험하지 않는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다양한 범주가 얽혀 있는 ‘다른 젠더’를 경험하는 것이다.

규범은 투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특정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등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범주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모든 이주자가 동일한 이주자의 경험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다양한 범주가 얽혀 있는 ‘다른’ 이주자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주자 문학의 상호 교차성은 이주자들이 처한 열악한 사회적 위계의 문제가 기존의 타자의 논리가 갖는 허구를 비판하고 진정한 타자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유럽 이주자 문학의 상호 교차성은 근본적인 문제로 새로운 정체성이 타자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동시에 이질적이고 다양한 것으로 드러나는 정체성들과 경험들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주자 문학의 상호 교차성은 아래와 그림과 같이 제1세대와 제2세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주 작가의 글쓰기 또한 제1세대와 제2세대가 서로 다르며, 제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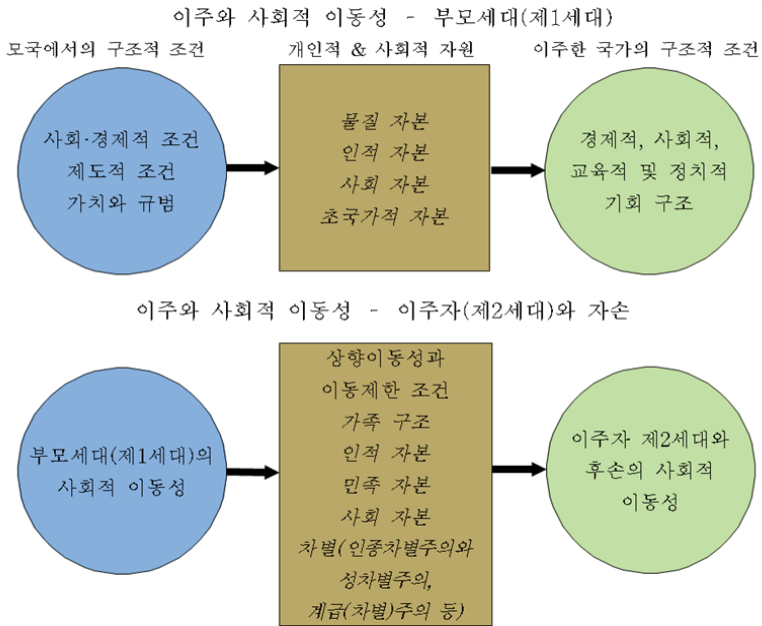
11) Jock Collins, *Kebabs, Kids, cops & crime. Youth, Ethnicity & Crime*. Annandale, NSW: Pluto Press and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2000. Kimberlé Crenshaw,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 Paulina De los Reyes & Diana Mulinari, *Interseksjonalitet: kritiska reflektioner över (o)jämlighetens landskap*, Stockholm: Liber, 2005.

대 이주자도 작가의 성별, 출신과 배경, 계급 등 다양한 범주들이 교차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주자 문학에 관한 연구는 북유럽 문학계에서도 초기 단계로 수행되어 있는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한국에서 스웨덴 문학에 관련된 연구조차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충분한 학문적 가치를 가지고 학문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들 북유럽 이주자 문학의 등장과 배경을 조망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스웨덴 문학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극히 지역적으로 소외되어있는 스웨덴 문학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연구는 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가치를 가진다.

이주자 문학은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계급차별화 등이 복잡하게 상호 교차(intersectionality)하는 공간이다. 특히 이주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적 콘텍스트가 다양화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사회 주체들이 태생적으로 주어진 특정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개념이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성, 인종/민족, 계급, 국가 정책 체계들의 상호 교차에 의해 다양한 이주자 정체성들이 구성되고 있다. 다양한 지배 체계들이 교차하는 연결망에서 이주자들이 자신을 어디에 위치 짓는가, 혹은 어디에 위치 지어지는가에 따라 이주자들의 정체성이 다르게 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상호 교차성에 대한 개념 역시 한국의 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중요한 이론을 제공한다. 이는 향후 이주자 문학과 다문화 연구의 토대를 제공해 주는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림 1> 이주 작가의 이주자 문학의 상호 교차성



다원주의 국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미래의 이주사회가 안게 될 현실적 문제에 아직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북유럽 이주자 문학은 한국의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다문화주의가 미래의 한국을 준비하는 선형적 사례로 인식하면서도 정작 이주민 자신들의 목소리는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다문화주의가 공통으로 함의하는 바는 바로 근본적으로 ‘이주’와 ‘이주자’의 문제이다.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문화의 다양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 내부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들이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자 문학이 이러한 바탕 위에서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한국의 이주자 문학도 또한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유럽의

이주자 문학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주자 문학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

4.1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

생소한 지역에서 태어난 작가들이 스웨덴 문단에 등장한 지난 40년 전만 해도 스웨덴 이주자 문학은 번역 또는 작가와 번역자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1980년경 이후 대부분은 이민 후에 정착한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여 문학작품을 출간함으로써 새로운 테마와 새로운 사건의 배경 및 북유럽 문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들이 추가되었다. 이주자 문학의 작가들은 어른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 사람들이거나 이민 2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대표언어는 스웨덴어가 되었다. 이방인의 언어에서 사회·문화적 체험의 언어로 나아가 정치·사회적 언어로 발전하면서 북유럽 문단에 다원주의적 삶의 양식과 자양분을 공급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담론들을 만들어내면서,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일부 작가들은 동시대 문단에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작가들로 손꼽히고 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작가로 일컬어지는 이주 작가로는 요나스 하센 케미리(Jonas Hassen Khemiri), 알레한드로 레이바 뱅에르(Alejandro Leiva Wenger), 요한네스 안유루(Johannes Anyuru) 그리고 마리야네 바크티아리(Marjaneh Bakhtiari)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가 요나스 하센 케미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011년 10월 케미리의 데뷔 희곡인 『침입』이 극단 유랑선에 의해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되어 우리나라에도 케미리의 이름이 소개된 바 있고, 케미리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동시대 스웨덴 작가로 손꼽힐 뿐 아니라 최근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기 시작한 신예 작가로 스웨덴 이주자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06년에 아우구스트상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같은 해에 P O 엔퀴스트상을 수상한 그의 두 번째 소

설인 『몬테코어』를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몬테코어』는 케미리의 자서전적인 소설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이주자 1세대와 2세대의 모습을 묘사하며 상호 교차성을 고찰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과농에 따르면 식민사회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성립시키고, 이러한 대립관계에서 과생되는 억압 상황은 폭력적 저항을 통해서 극복된다.¹²⁾ 과농처럼, 소설 속의 요나스는 서구가 구성한 이분법적 사고에 따라 열등의식을 갖게 된,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흑인성을 폐기하고 백인화하고자 하는 흑인들을 질타한다. 심지어 그 대상이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미친다. 요나스와 그의 친구들은 이주민 세대가 아닌 제 2세대에 속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부모인 1세대와는 달리 부모가 지녔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오히려 매우 크다. 그들에게 이러한 욕망이 생겨나게 된 기저에는 스웨덴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있다. 그들이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이러한 시선이 고착화되는 과정으로서 그들은 응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응시 속에서 여러 갈등이 생겨나고 직접적으로 상처받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과농이 그의 탈식민 담론을 위한 책략으로서 전투적 저항에 많이 의존하면서 인종차별적이고 폭압적인 정치체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처럼 요나스는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친구들과 공통의 목표를 내세우고, 디스토피아에 대한 절망과 분노를 표출한다. 요나스와 친구들에게 있어 폭력과 저항은 자신의 정체성들을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백인과 구별되는 흑인 고유의 정신과 주체성을 통해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어다. 카디르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공을 들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재미있는 외국인의 스웨덴어로 들린다. 때때로, 카디르는 압바스의 편지들을 아랍어에서 스웨덴어로 번역한다. 요나스의 언어에는 힙합, 아랍어, 영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케미리시라고 부르는 사적인 언어들이 스며들어 있다. 소설에서 보여주는 언어학적 퍼포먼스 수준은 읽는 이를 흥분시킬 정도로 재미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혼혈어, 그

12) 프란츠 과농, 『검은 얼굴 하얀 가면』(이석호 역). 서울: 인간사랑, 1998.

의 목소리들은 기록하는 형식과 참조하는 형식을 오가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이 서로 다시 섞이면서 인물과 문화에서 드러나는 실질적인 정서적 차이가 잘 묘사되고 있다.

스웨덴 이주자 문학의 의미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구와 제도들이 형성되게 되는 주변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 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3%로 북유럽에서 가장 높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월등하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해 온 스웨덴은 주류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스웨덴은 공식 언어나 시민 교육을 이주자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언어가 체류 중 획득의 전제조건도 아니다. 스웨덴의 다문화 모형 통합정책은 집단 중심을 강조하고 이들의 문화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정책과 개인 자격으로 시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시민적, 사회적 권리를 받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즉 이주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동시에 이민자의 배제를 극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스웨덴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두어지고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스웨덴에 대한 관심은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실제 스웨덴 이주자의 정체성과 내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불가능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웨덴 이주자 문학은 매우 중요하며 스웨덴의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스웨덴에는 이주자 배경을 지닌 유명한 작가가 덴마크보다 10배나 많으며, 현대 문학의 발전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되고 있는 이주자 문학의 부재가 덴마크는 무척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보면 이주자 문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지 느끼게 해준다.¹³⁾ 무엇보다도 이러한 스웨덴 이주자 문학을 통하여 대상이나 객체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지위를 가진 타자의 출현이라는 의미를 새로이 성찰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3) Marie Hvid, Damborg, (Ind)vandrerlitteratur. Speciale, Institut for Litteraturhistorie: Aarhus Universitet, 2003.

4.2 블라테(Blatte)

알제리인 아버지(압바스)와 스웨덴인 어머니(페르닐라) 사이에서 태어난 요나스가 아버지의 친구 카디르와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스웨덴 이주민의 혼란과 갈등을 잘 보여준다. 주인공 요나스는 이와 같은 갈등을 이겨내기 위해 친구들과 조직을 결성하는데 ‘블라테’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난국에 봉착하게 된 로마인들이 투르크인들을 가르켜 ‘블라테’라고 불렀다. ‘바퀴벌레’라는 뜻도 있는데, 최근에는 경멸의 의미로 ‘머리가 검은 민족’들을 가리켜 스바르트스칼레(svartskalle)라고 부른다. 블라테는 보다 아웃사이더이며, 중립적인 뜻으로 사용된다.

아빠가 없는 동안 너는 성장했고 전쟁을 시작했다. ‘평생 블라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정체불명의 혼혈아들이다, 모든 것의 혼합물이다, 색안경을 쓰고 분류해 놓은 칸막이를 부숴 버린 사람들이다.¹⁴⁾

그렇지만 요나스의 아버지인 압바스는 스웨덴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스웨덴어를 완벽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혀를 구부렸고, 게다가 아들의 이름조차 ‘유네스’ 대신에 ‘요나스’ 라고 지어 주었다. 스웨덴에 정착한 이주민으로 다음 세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그의 정체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언제까지나 그를 아웃사이더로 간주한 곳이다.¹⁵⁾ 위의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 요나스의 아버지는 스웨덴에 완전히 동화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했지만 실패한 인물이다. 요나스 또한 이주민의 자식으로 혼란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와 갈등을 갖게 된 인물이다. 지금과 달리 과거 이민 1세대를 향한 스웨덴인들의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았다. 이것은 요나스의 아버지 압바스가 스웨덴인인 페르닐라와 결혼하기 위해 스웨덴으로

14) Jonas Hassen Khemiri, 『몬테코어』 (홍재웅 역). 서울: 민음사, 2012, p. 357.

15) op.cit., p 377.

은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다. 페르닐라의 가족들은 압바스가 알제리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결국 결혼을 허락 받긴 했지만 혼인 신고 후 스웨덴 당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부부는 이 결혼이 압바스의 스웨덴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결혼 후 압바스는 평생 꿈꿔온 사진작가로서의 데뷔를 위해 온갖 고생과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웨덴인과는 다른 그의 외모와 그의 국적은 그에게 좌절만을 안겨주었다.

주말이면 그는 ... 이 화랑에서 저 화랑으로 열심히 돌아다녔다. 그의 서류 가방 안에는 두 가지 준비된 사진 작품 시리즈가 들어 있었어. ...화랑 주인들이 그를 맞고, 신경질적인 미소를 짓고, 그의 작품을 훑어보고, 흠 소리를 내고 나서, 그가 직접 제작한 그의 명함을 받아 든다. 그들은 그의 재능에 찬사를 보내지. 그들은 같이 협력할 수도 있다고 약속을 해. 하지만... 그가 막 나가려고 할 때, 스웨덴 사람들에게 있어 아주 필수 불가결한 질문이기도 한 국적에 대한 질문을 그에게 던진다. 그리고 사진에 대한 포부와 관련해서 자기의 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네 아빠의 목소리는 점점 더 피곤해져 간다. 화랑 주인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며 곧 전화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 얼마나 많은 화랑 주인들이 네 아빠에게 전화를 했을까?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단다.¹⁶⁾

압바스의 작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던 화랑주인들은 그의 국적을 듣고 나서 그의 재능에 가졌던 관심을 접는다. 과연 한 사람의 국적이 그가 가진 재능을 꺾어버릴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국적이 그 사람이 지닌 가치를 무시할 만큼 대단한 것인지 요나스에게는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스웨덴에서는 외국인들이 스웨덴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다르게 반응해. 지시대명사 “뭐?”를 아랍어 억양을 섞어서 유창하지 못한 스웨덴어로 말하면 화가 난 것으로 받아들여서 짜한 분위기가 되어 버려. 대신에 영어로 말하거나 프랑스어로 말하

16) op.cit., pp. 119-120.

면, 미소로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받아들이지.¹⁷⁾

“몬테코어”라는 제목은 작가의 내적 혼란과 관련이 있는 비유라고 생각한다. 책에서는 제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암시를 준다. 우선 신화 속 반인반수 맨티코어(manticore)와 본인의 뿌리를 의미하는 단어인 산사람(montemän)이 합성된 단어라는 추측이다.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서 남아있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다. 또한 라스베이거스 쇼에 등장하는 백호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는 순하게 길들여지기도 하지만 사실 길들여진다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로서의 이민사회를 비유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책은 압바스의 인생사를 슬프지만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다. 마냥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한다. 튀니지에서 정치적인 트라우마를 안고 고아로 자란 압바스는 관광도시 타바르카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며 먼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는다. 사진작가로서의 부푼 꿈을 안고 스웨덴 여성 페르닐라와 결혼하여 스웨덴 이주 및 주류사회와의 동화를 지향하지만, 무기력하게 ‘중발’하게 되는 내용이다.

4.3 반쪽 스웨덴인으로서 산다는 것의 비극

스웨덴에는 이민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평등의 기류가 있다. 현실을 애써 부정하던 압바스는 ‘레이저 맨’의 공포와 반 이민 정서에 못 이겨 결국 스웨덴을 떠나는데, 스웨덴 토박이로 태어났지만 스웨덴인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아들 요나스와 남겨진 가족들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간직하게 된다. 책은 요나스가 카디르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아버지의 삶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두 사람의 압바스에 대한 상반된 묘사는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이었을 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스웨덴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채 위축되어갔다는 사실이다. “진실의 복잡함이 그가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¹⁸⁾ 라는 구절이 있다. 압

17) op.cit., p. 190.

바스와 카디르가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에서 압바스는 자신을 성공한 사진기사로 착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아들 요나스의 방과 후 수업조차 지원할 수 없었다. 그의 아들 요나스 또한 어릴 적 언어장애를 겪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데 그들만의 언어인 ‘케미리어’를 비롯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다. 스웨덴 현지인들의 불안감이 90년대부터 극우정당의 기류를 타고 증폭되면서 이민자에 대한 테러로 이어지고 요나스의 정체성 혼란은 더욱 심화된다. 5부에서는 요나스의 시점이 ‘너’에서 ‘나’로 바뀌게 된다. 스웨덴 사회에 대한 분노가 그와 동화되는 순간인 듯하다. 또한 이방인으로서의 성장통을 겪은 10대의 요나스가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된 순간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는 자의 반, 타의 반 아웃사이더로서의 이민 2세대이다. 보통 3D직종에 노동력으로서 유입된 이민자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스웨덴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난민유입을 지향했다는 것과 맞물려 더욱 심화된다. 책에는 팔메총리가 암살당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올로프 팔메는 네덜란드계와 독일계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총리로서 제3세계에 정치, 경제적인 지원을 노력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그의 죽음이 스웨덴 주류사회와 이민사회 간 불협화음으로서 충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4.4 스웨덴 사회를 바라보는 이방인의 시각

압바스가 튀니지인으로서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고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 스웨덴의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이민정책 덕이다. 하지만 스웨덴 국민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에는 이민자에 대한 편견이 너무 컸다. 사진보조기사로 일을 시작하는 것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시내와 교외에 대한 이민자들의 시선도 엇볼 수 있다. 서방 세계를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스웨덴은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도시가 재배치되고 있다. ‘할렘’과 같은 이민 인구 밀집 지역이 생기는 것이

18) op.cit., p. 45.

다. 정부의 이민자 지원 주택 보조 정책도 이유가 되겠지만 경제적 격차와, 이민 사회의 문화에 대한 당국의 관용적 태도가 불러오는 딜레마일 수도 있겠다. 현지인들만큼 이민자들도 나름의 불만이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실업과 복지축소는 인종에 관계없이 스웨덴 국민으로서 함께 안고 가야 할 문제이므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듯싶다. 이방인들 사이에서의 문제는 더욱 크게 부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최근 이민자 폭동은 이민사회와의 불협화음이 실체화되는 오늘날 더욱 안타까운 화젯거리다. 페르닐라는 “ABF(스웨덴 노동자 교육 연합)”를 통한 스웨덴어 학습을 강조하고 압바스는 언어부터 생활 모든 것을 현지화 하기 시작한다. 요나스가 스웨덴어 학습 과정에서 ‘메모리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스웨덴어를 정리하는데 스웨덴의 자연, 문화, 세금 등에 대한 이민자의 시각이 다소 풍자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이는 유창한 스웨덴어 구사가 이민자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믿음과 이를 요구하는 사회적 풍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압바스는 돼지고기를 먹고 스튜디오의 간판을 바꾸고 강아지 사진을 찍으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한다. 이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자 믿음이 더욱 확실해진다. 하지만 갈수록 위축되는 그의 모습과 센트랄 역에서 만난 아리스토 캣츠들과는 더 이상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퍼붓는 장면에서 등대와 같던 그의 젊은 시절과 대조적으로 슬픔을 자아내주는 장면이 된다. 압바스는 자신의 아들만은 절대로 아웃사이더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인 반면 요나스는 아버지를 ‘엥클 톱’이라고 묘사한다. 슬프지만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세대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 물건을 사러 가도 의심하는 현지인들의 눈초리가 심화되고 ‘레이저 맨’의 위협이 극에 다를 무렵 압바스의 스튜디오는 테러로 인해 불에 타버린다. 이는 요나스와 이주민 친구들의 ‘블라테’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데, 압바스의 꿈이 담긴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스웨덴에 대한 분노가 더욱 극대화 되어 느껴진다. 압바스가 카디르에게 애써 부정해온 스웨덴의 이민사회 현실을 토로하는 장면은 애써 참아온 슬픔이 그만 터져 나오는듯한 느낌을 준다. 책의 초판이 링케뷔 스웨덴어로 발매된 적도 있다고 하니 이민사회의 시선을 잘 반영한 작품이 아닐까 싶다.

4.5 『몬테코어』에 나타난 상호 교차성

상호 교차성은 ‘우리 대 그들’ 또는 ‘그들 대 우리’ 그리고 ‘나 대 그들’ 또는 ‘그들 대 나’의 형태로 나타난다. 케미리의 소설에서 어린 시절 암바스와 카디르가 젠두바에서 튀니지아의 타바르카로 이사를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권한에 대해서 의식하게 된다. 그들은 서방세계와 어른들의 세계를 알게 되는데, 삶 속에서 공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연극과 같다.

그래도 타바르카의 일상은 젠두바의 밤낮과 비교되었다. 과자를 포장하는 대신에 우리는 해변파티, 대마초, 디스코 댄스, 이국적인 호텔 방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젊은 시절의 낙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름을 경험했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관광객 나부랭이들이 우리 같은 시골뜨기들에 대한 갈망으로 포도송이처럼 매달려있었다.¹⁹⁾

위에 인용된 문장에서 상호 교차성은 나이와 성별, 두 가지 차원에서 드러난다. 두 사람 모두, 특히 카디르는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는 기회를 보게 된다. 어른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그들은 무서울 것이 없는 무적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심지어 교만함까지도 느낀다. 나이와 관련된 상호 교차성은 우선 그들의 부모와 관련되어 있고, 고전적인 청소년시기의 반항,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느낌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시점에서 자신들이 봉착해 있던 외부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별과 관련된 시각으로 볼 때 위 인용문은 훨씬 더 명백하게 나타난다. 정확하게 ‘우리’는 암바스와 카디르이며, 남자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여성들이다. 카디르가 표현했던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있다는 관광객나부랭이들’은 여성을 뜻한다. 에로틱한 모험을 즐기려는 것만이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19) op.cit., p.67.

며 그들은 순진한 관광객으로 뜨내기 방문객에 불과할 뿐이다. 반면에 매일 밤 호텔방들을 이곳 저곳 찾아 다니는 압바스와 카디르와 같은 남성들과 여성 관광객들 사이에는 성적인 불평등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케미리의 소설에서 상호 교차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타자의 계급, 성, 인종, 성적 취향 등과 같은 중층적인 배경에서 비롯된다. 여러 예들이 있겠지만, 라이노라는 핀란드스웨덴인이 압바스에게 스웨덴에서 사진과 관련된 일을 처음으로 제공한 인물이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빨간 코 위로 그의 속눈썹이 백색 포유동물의 그것처럼 반짝 거렸어. 그는 양끝이 밀로 축 쳐져서 텅수룩한 노란색 콧수염이 있었고, 그의 음주 습관은 도가 좀 지나칠 정도였어.²⁰⁾

보다 더 명백한 예는 압바스가 일자리를 찾아서 스톡홀름에 있는 사진 스튜디오를 돌아다닐 때의 모습을 그린 장면이다. 상호 교차성의 대표적인 요소들 중에 압바스가 겪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로 인종적 권력투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처음에는 사진작가 보조 일자리에 있어. 이 스튜디오에서 저 스튜디오로 걸어 다니면서, 타바르카에서 작업했던 내 사진 경력을 소개하고 조금 아니면 거의 무급에 가까운 일이라도 받으려고 했지. 나의 성공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야. 사진 작가들은 유감스럽지만 스웨덴어를 배우지 않은 보조 기사를 채용할 수 없다며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았어.²¹⁾

압바스는 구직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만 그의 출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서는 성공적이었던 인터뷰가 인종적인 문제로 인해 그의 구직이 수포로 돌아가는 장면이 소설 말미에 여러 차례 반복된다. 그와 잠재적인 고

20) op.cit., p.106.

21) Ibid.

용주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 교차성은 계급, 성별, ‘인종’ 또는 인종적인 배경에 관한 관점들이다.

소년 요나스(Jonas)의 친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멜린다(Melinda)가 소설에 나오는 여자 친구이다. 임란(Imran)과 파트릭(Patrik)처럼 요나스와 멜린라도 우연히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한다. 요나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던 멜린다를 제일 먼저 만났고, 이후 요나스와 멜린다는 전철에서 임란을 만나게 되고, 요나스가 외가댁의 여름별장에 휴가를 보내러 갔다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친구이다. 멜린다와 임란은 요나스와 사는 환경이 비슷했지만 파트릭은 부유한 집안에서 살고 있었다. 다만 파트릭은 자신의 친부를 만난 적이 없다. 요나스와 다른 친구들은 서로 다르고, 세계의 서로 다른 곳에서 스웨덴으로 이사를 왔다. 이들 네 명의 친구들은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아버지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낭만적으로 생각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엮어 간다. 이들 중 멜린다는 말괄량이라고 불리는데, 그녀 자신도 ‘여성스럽다’는 것은 모두 명정한 것이라 생각하며, 서구적인 기준으로 남자아이들에게 전형적인 행위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몰두하기를 원한다. 케미리의 소설에서는 여성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배제되면서 성에 근거한 상호 교차적인 관계로 이어진다.

이제까지 ‘우리 대 그들’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교차성을 살펴보았다면, ‘나 대 그들’이라는 측면에서도 소설 속에 나타나는 상호 교차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대 그들’이라는 측면에서 나이에 근거한 두드러진 상호 교차성은 요나스가 처음 언어치료사를 방문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요나스가 탁아소를 다닐 때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문제가 표출되면서 언어치료사를 방문하게 된다. 언어치료사는 요나스의 언어발달 능력이 늦은 이유가 언어적으로 혼란스러운 집안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 엄마와 아빠는 서로 손을 맞잡고서 서로를 흘끗 쳐다본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는다. 너의 새로운 미키 마우스 페즈를 제외하곤 말이다. 미키마우스는 화가 나서 청바지 주머니에서 깡충 뛰어나오더니, 언어치료사의 반짝거리는

책상위에서 팔짝팔짝 뛰다가 저질로 뒤로 구부러져서 언어치료사에게 직사각형 사탕들을 퍼붓기 시작한다. /.../ “잘했어, 미키!” 그리고 내가 위로 고개를 들어 너를 바라보는 어른 세 명의 걱정스러운 눈을 발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이파이브를 한다. /.../ 불의의 세상에 항의하고, 탁아소 멍청이들에게 항의하고, 언어치료사와 어두운 방에 항의하고 벽장의 유령들에게 항의하고 아빠로서는 처음 맞는 스웨덴 국경일에 스칸센 민속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엄마를 보고 깜둥이 애인이라고 속삭이던 아줌마에게 항의하던 게 바로 너희들이었기 때문에 너와 미키 마우스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²²⁾

물론 위의 인용문에서도 ‘우리 대 그들’이라는 관점도 제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요나스의 미키마우스는 캐릭터가 아니라 도피처이거나 외로움에 갇혀있는 요나스에게 믿음직스런 공상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지적했다시피 상호 교차적인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중대한 문제는 ‘나이(나이를 먹음)’라는 차원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로는 불평등함의 모습 같은 것은 없다. 그렇지만 요나스의 성장과 발전을 생각해볼 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고 결국 두 인물은 상호 교차적 분석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제공해준다.

압바스의 친구는 아리스토크츠라고 부르는 남성 이주민 모임에 한정되어 있다. 그는 이주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이주민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꿈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눈다.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난 후 ‘다이내믹 듀오’²³⁾를 시작했을 때 압바스는 그 친구들에 관해 전혀 다른 관점을 품는다. 그들을 ‘우리의 일부’라고 보는 대신에 ‘그들 중의 일부’처럼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즉 ‘나 대 그들’이라는 측면이 새로이 생성된다.

22) op.cit., pp. 159-160.

23) 압바스와 그의 아들 요나스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다이내믹 듀오’를 만든다.

“아니! 아리스토크츠로부터 내가 떨어지고자 하는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 “나는 사회복지부의 지원으로 산다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너무나 많은 유색인종이민자들이 지니고 있는 게으름이 나에게서는 절대로 감염되지 않아! 대신에 내 스튜디오는 막대한 수익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오랫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거야. 자 이제 가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²⁴⁾

위 인용문에서는 서로 다른 상호 교차적 요소들이 어떻게 흘러나오며, 그것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압바스는 그들과는 자신이 다르다는 계급적인 관점을 가지며, 또한 아리스토크츠로부터 벗어나려는 압바스의 눈과 야망을 통해서 그들이 인종적으로 밀바닥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압바스는 스스로를 ‘더 나은 이주민’으로 보고 일자리가 통합의 열쇠가 된다고 주장하는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계급이라는 상호 교차적 요소는 단순히 압바스와 페르닐라의 삶에 대한 표현일 뿐 아니라 요나스가 점점 더 나이가 들고 다름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요나스의 성장에도 투영되어 나타난다. 동시에 그와 다른 아이들 사이에 같은 점들 역시 나타나는데, 요나스가 2학년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묘사되는 장면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반 친구들은 너와는 달리 대부분 자동차가 있었고, 유명 상품 옷을 걸치고 비디오 게임기를 가지고 있었고, 케이블 TV와 호화로운 여름별장 그리고 가지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목록이 종이 한 장 가득 채웠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너도 케이블 TV를 갖게 되었다고 친구들한테 말했던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자 그때 친구들 중 누군가가 네게 가장 즐겨 보는 채널이 뭐냐고 물었고, 너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²⁵⁾

24) op.cit., pp. 202-203.

25) op.cit., p. 226

이러한 소외감을 통하여 요나스, 멜린다, 임란 그리고 파트릭은 서로 마음의 벼를 찾게 되고, BFL(Blatte²⁶ for life)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인종차별주의와 부당함에 항거하는 활동을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우리’를 경멸하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한다. ‘인종적인 배경’이라는 상호 교차적 요소는 결국 그들에게 소외감을 갖게 하고, 부당함과 편견에 대한 경멸 만들어낸다. 여러 가지 상호 교차적인 요소들 사이에 어떻게 만났는지 형성되고 어떻게 인물들을 변형시키는지 소설에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5. 나가는 말

이제까지 북유럽 문학은 국내 연구에서 매우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의 문학계에서 주목하는 문학작품과 작가들이 다수 북유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문학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국내에서 노벨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스웨덴 문학의 흐름에는 등한시 하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주자 문학의 연구가 한국에는 다소 생소하고 스웨덴 이주자 문학 연구 역시 초기 단계임을 감안한다면, 새로이 등장한 이주자 문학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게다가 이주자 문학은 기존 주류 문학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있으며, 현대 스웨덴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스웨덴 이주자 문학은 물론 이주자 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보다 풍요롭게 하고 현재 북유럽 문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6) Cf. op.cit. p. 406.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엄청난 난국에 봉착하게 된 로마인들이 투르크인들을 ‘블라테(Blatte)’라고 불렀다. ‘바퀴벌레’라는 뜻도 있다. 최근 경멸의 의미로 ‘머리가 검은 민족’들을 스바트스칼레(Svartskalle)’라고 하는데 블라테는 보다 중립적인 뜻으로 사용된다.”

한국의 이주 역사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비해서 아직까지 짧은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한국의 이주자 문학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주자들에 대한 논의나 한국문학 작품들에 이주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 포함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이주자 문학의 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주자 문학의 중요성이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형식, 내용, 언어를 가진 이주자들이 현대 스웨덴 문학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도래할 한국의 이주자 문학에 대한 위상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스웨덴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테마와 새로운 서사기법으로 스웨덴 문학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는 스웨덴 이주자 문학에 대한 고찰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스웨덴 문학에 새로이 등장한 이주자 문학의 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은 어떠한 주제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제도권으로 입성한 현재의 스웨덴의 이주자 문학 중 대표적인 작가 케미리를 살펴보았다. 스웨덴에서 이주자 문학이 활발한 이유는 스웨덴이 지닌 독특한 이주자 정책과 이주자 문학의 상관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학문적 기여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북유럽 문학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며, 본 연구는 스웨덴 문학과 북유럽 문학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가능케 할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유럽 문학에 대한 학습서는 전무하고, 스웨덴 문학 개론서조차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웨덴 문학뿐 아니라 북유럽 사회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하며, 스웨덴의 정치·사회·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심화된 스웨덴 학습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유럽의 다문화주의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여전히 생소한 이주자 문학은 인종, 성, 계급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과 관련된 페미니스트 문학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Khemiri, Jonas Hassen. 2006. *Montecore*. Stockolm: Norstedts.
_____. (홍재웅 역) 2012. 『몬테코어』. 서울: 민음사.

2차 자료

유진월 & 이화형. 2010. “침묵하는 타자에서 저항하는 주체로의 귀환: 해외 여성 입양인 문학의 지평”, 『우리문학연구』 29집, 우리문학회.
프란츠 파농. 1998. 『검은 얼굴 하얀 가면』 (이석호 역). 서울: 인간사랑.
홍재웅. 2009. “북유럽 희곡에 내포된 공간적 특성에 대한 고찰”,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0호,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Appelros, Erica. 2005. “Religion och intersektionalitet”, *Kvinnovetenskaplig tidskrift(Kvt)*.

Ashcroft, Griffiths and Tiffin. 2000. *Post-Colonial Studies. The Key Concepts* (UTDRAG).

Behschnitt, Wolfgang. 2007. “The voice of the ‘real migrant’. Contemporary ‘migrant literature’ in Sweden”, in *Conference, Migration and Literature in Contemporary Europe*, Köpenhamns universitet 8 nov.

Borgström, Eva. 2005. “Från redaktionen: Om ord, olikheter och ojämlikhet”, *Kvinnovetenskaplig tidskrift(Kvt)*.

Bundgaard, Peer F. 2005. “Hvad er postkolonialisme egentlig?”, *Kritik*, nr. 175.

Clifford, James. 1999. “Diasporas”, in Robin Cohen og Steven Vertovec(ed.), *Migration, diasporas and transnationalism*. London.

Collins, Jock. 2000. *Kebabs, Kids, cops & crime. Youth, Ethnicity & Crime*. Annandale, NWS: Pluto Press and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Crenshaw, Kimberlé.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 Crenshaw, Kimberlé(ed.). 1995. *Critical Race Theory. The Key Writings That Formed the Movement*. New York: The New Press.
- Damborg, Marie Hvid. 2003. *(Ind)vandrerlitteratur. Speciale*, Institut for Litteraturhistorie: Aarhus Universitet.
- De los Reyes, Paulina & Mulinari, Diana. 2005. *Intersektionalitet. Kritiska reflektioner över jämlikhetens landskap*. Lund: Liber.
- _____. a. 2005. *Maktens olika förklådnader: Kön, klass och etnicitet i det postkoloniala Sverige*. Atlas bokförlag.
-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Pantheon Books.
- Gilroy, Paul. 1999. “Diasporan och identitetens omvägar”, in Johansson, T., Sernhede, O. & Trondman M. *Samtidskultur(Karaoke, karnevaler och kulturella koder)*, Nora: Bokförlaget Nya Doxa.
- Gröndahl, Satu. 2002. “Från ’mångkulturell’ till ’mångspråkig’ litteratur?”, in Gröndahl Satu(ed.). *Litteraturens gränsland. Invandrar- och minoritetslitteratur i nordisk perspektiv*, Uppsala: Centrum för multietnisk forskning: Uppsala Universitet.
- Gröndahl, Satu & Wendelius Lars. 2002. *Den dubbla identiteten: Immigrant- och minoritetslitteratur på svenska 1970-2000*, Uppsala.
- Heise, Paulina. 2004. *Kom til Danmark*. København: Courage.
- Holmberg, Claes-Göran & Ohlsson Anders. 1999. *Epikanalys*. Lund: Studentlitteratur.
- Muller, Gilbert. 1999. *New Strangers in Paradise. The Immigrant Experience and Contemporary American Fiction*.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Niittymäki, Maija. 2003. “Långt från det lagom svenska”, in *Nerikes Allehanda* 27 Aug.
- Nyman, Jopi. 2002. “Migrancies and Modernities in Jamal Mahjoub’s The

- Carrier”, in *Nordic Journal of English Studies*, Vol. I, No. 2.
- Poulsen, Peter(ed.). 1992. *Fuglevingen: en indvandrerantologi*. København: Vindrose.
- Rabe, Annina. 2003. “Vasst på bruten svenska”, in *Svenska Dagbladet*, 4 Aug.
- Said, Edward W. 1995. *Orientalism*. Harmondsworth: Penguin.
- Seiersted, Jørgen Magnus. 2003. “Norsk migrasjonslitteratur”, in Seiersted, Jørgen Wendelius, Lars. 2002. *Den dubbla identiteten. Immigrant- och minoritetslitteratur på svenska 1970-1990*. Uppsala: Centrum för multietnisk forskning, Uppsala Universitet.
- Young, Robert. 1995. *Colonial Desire: Hybridity in Theory, Culture, and Race*. London.
- Yuval-Davis, Nira. 2006. Intersectionality and Feminist Politics, in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August 2006 vol. 13 no. 3 pp. 193-209.

<Abstract>

The Study of Intersectionality of the Migration Literature in Sweden: Jonas Hassen Khemiri's *Montecore*

Jai-Ung 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 of the Swedish migrant literature, which contributes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Swedish literature in several ways. Still, dominant literary circle in Sweden tends to underestimate the value of the Swedish migrant literature and it is easy to make a mistake in its literary analysis. Migrant literature often focuses on the social contexts in the migrants' country of origin which prompt them to leave, on the experience of migration itself, on the mixed reception which they may receive in the country of arrival, on experiences of racism and hostility, and on the sense of rootlessness and the search for identity which can result from displacement and cultural diversity.

By studying the literary criticism on Jonas Hassen Khemiri and his novel, *Montecore*,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ritics tend to focus on the authors' *otherness*. By using intersectionality theory I've analyzed the role as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reality that is applied on Khemiri by the literary critics. The theory of intersectionality have been used to contextualize these conclusions. The otherness is one of the negative symbolic capital in a bigger

* Department of Scandinavian Languag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cietal perspective and in the author's position within the literary field. In his novel *Montecore* Khemiri focuses on issues of racism and adjustment to a new life in the putatively progressive development of Sweden.

In literature of second generation migrants, a location "between" two cultures is often mentioned as a way of expressing a sense of belonging in neither the guest nor the host community. Those whose experience has been more positive may reject the notion of "between" and feel that they live, rather, in the cultural overlap, not a void but a place of particular richness. In this sense the study of Swedish 'migrant literature' may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onstruction of ethnicity in the contemporary Sweden.

Key Words: The Swedish migrant literature, Jonas Hassen Khemiri, Montecore, Otherness, Intersectionality

성명: 홍재웅
소속: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E-mail: theaterhong@gmail.com

논문접수일: 2014.7.25.

수정원고접수일: 2014.8.12.

논문심사완료일: 2014.8.05.

게재확정일: 2014.8.13.